

S.ZIN

SGI MAGAZINE

2025 SUMMER — VOL. 59



With you

CONTENTS

S:ZIN
통권 제292호
발행처
SGI서울보증 인재개발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연지동 136-74)
발행일
2025년 7월 25일
전화
02-3671-7594
팩스
02-3671-5590
홈페이지
www.sgic.co.kr
기획·디자인·인쇄
(주)디앤씨컴퍼니



SGI 인사이트

06

트랜드 키워드

2025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50,
산업별 가치와 전략의 판도

10

사유의 시간

시작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14

아름다운 동행

전쟁이 남긴 눈부신
가족의 이야기, 아일라



어바웃 SGI

18

SGI 양케이트

업무 밖에서
나를 키우는 시간

20

SGI 스토리 1

성과와 헌신이 만든 결과,
위드 아너스 & 위드 플러스
수상자 인터뷰

26

SGI 스토리 2

직원이 자랑스러운 회사,
부모가 감동한 시간
노동조합 해외연수

30

SGI on air

외상으로 쌓은 신뢰, 보험으로
지킵니다!
‘매출채권신용보험, 그 현장
홍보 속으로’



라이프 인 SGI

34

만남의 미학

삶을 빛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물레 위의 순간

38

퇴근길 문화

향기로운 퇴근,
나만의 향을 찾는 시간

40

트립 어드바이저

시원한 여름의 시작
국내 워터파크 TOP 5

42

북 토크

여름,
책 속으로 빠져드는 순간

44

불만한 꿀튜브

혼자 떠나도 충분한 이유,
요즘 캠핑 유튜브



SGI 커넥트

46

미식관, 맛집지도

한여름 입 안에 퍼지는
특별한 행복, 팔빙수

48

SGI 톡! 톡!

오늘 전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요

50

문화레터

무더위를 날릴
8월의 개봉영화 라인업

52

SGI News

55

SGI Quiz

여름일기

오늘 아침
내 마음의 밭에는
밤새 봉오리로 맺혀있던
한 마디의 시어가
노란 썩갯꽃으로 피어 있습니다.

비와 햇빛이 동시에 고마워서
자주 하늘을 보는 여름
잘 익은 수박을 쪼개어
이웃과 나누어 먹는 초록의 기쁨이여

우리가 사는 지구 위에도
수박처럼 둥글고 시원한
자유와 평화 가득한 여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다림질한 흰 옷에
물을 뿌리며 생각합니다.

우울과 나태로 풀기없던 나의 일상을
희망으로 풀먹여 다림질해야겠음을
지금쯤 바쁜 일터로 향하는 나의 이웃을 위해
한 송이 기도를 꽃피워야겠음을...

이해인





2025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50, 산업별 가치와 전략의 판도

서울 최대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글로벌 대표 파트너 문지훈)는 지난 6월 17일 제13회 'Best Korea Brands 2025' 컨퍼런스를 열고, '브랜드 정반합(正反合)'을 주제로 대한민국 대표 50대 브랜드를 발표했다. 2025년 Top 50 브랜드의 총 가치는 234조 7,7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으며, 인터브랜드는 국내 브랜드들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유연한 전략과 지속적 혁신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글. 인터브랜드

주요 브랜드 순위와 산업별 성과

2025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Top 50의 브랜드 가치는 234조 원으로 전년 대비 9.6% 상승했다. 산업별로 나누어 보면 모빌리티와 테크놀로지 산업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하며 가장 큰 성장을 보였고, FMCG는 -12.4%로 낙폭이 컸다. 삼성전자는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브랜드 가치 122조 원으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반도체 산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모바일 사업부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LG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높은 브랜드 성장세를 이어갔다. 2023년 'Smart Life Solution Company'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가전 구독 서비스의 확장과 함께 HVAC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투자를 강화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 속에서도 브랜드 가치 2조 3,94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9% 성장을 이뤄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과 AI 중심의 기술 고도화 전략이 시장의 기대를 이끌었고,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ESG 경영 노력이 브랜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NOL로 이름을 바꾼 아놀드가 새로이 Top 50에 이름을 올린 점도 주목할 만하다. 숙박을 넘어 여행과 여가 전반을 아우르는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LG이노텍은 작년 Top 50에 처음 진입한 이후, 다각화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전 슬로건과 브랜드 스토리를 구축하며 테크놀로지 기업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전략적 브랜딩 노력을 통해 축적된 브랜드 자산은 올해 브랜드 가치 48위라는 안정적인 순위 상승에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자율주행차용 센싱 및 통신 모듈 사업을 미래 성장 엔진으로 설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전장 부문 기술 역량 강화 또한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모빌리티 산업은 산업군 중 가장 큰 성장세(+14.7%)를 보였다. 'Progress for Humanity'의 그룹 비전 아래 현대자동차는 14.6%, 기아는 16.6%, 브랜드 가치가 성장하였다. 자동차 기업을 넘어 로봇, 수소를 아우르는 퓨처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브랜드를 재정의하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EV, 하이브리드 모델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다.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역시 7.5% 브랜드 가치가 성장하며 전년 대비 3단계 순위를 끌어올리며 19위에 위치했다. 작년까지 큰 폭의 성장세를 유지했던 리테일은 올해 주춤한 모습이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의 약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던 편의점도 그 상승세가 꺾였다. 대신 쿠팡은 배달, 콘텐츠, 뷰티까지 상품군을 넓히며 라이프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속했다. 유통채널의 파편화 흐름 속 올리브영은 압도적 K-뷰티 채널로의 입지를 확고히 했고, 다이소는 가성비 생활용품을 넘어 뷰티,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군을 확장했다. 다이소는 작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Top 50에 첫 등장한 이래 올해도 5단계 순위가 상승하며 44위에 랭크되었다.

올해 FMCG 산업군은 전반적으로 숨 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가성비를 앞세운 인디 브랜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넓히고 있는 K-뷰티, 그리고 새로운 맛과 힘을 그려낸 인디 패션브랜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시장 강자로 군림해 왔던 브랜드들의 성장세는 주춤하기 때문이다. 이에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반면 F&B에서는 놀라운 이단아가 등장했다. '불닭' 신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 유튜브버들의 챌린지 돌풍을 일으킨 삼양식품이 올해 첫 TOP 50에 진입했다. 미디어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양질의 콘텐츠는 OTT 사업자가,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커지며 미디어 시장은 양극화, 파편화되었다.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해킹 사건도 통신 사업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Best Korea Brands 2025 Top50

(Unit: Million KRW)

Rank 2024	Change	Rank 2025	Brand-KR	Brand Value KRW (2025)	Brand Value KRW(2024)	BV %(25/24)
1	=	1	삼성전자	122,187,043	109,123,569	12.0%
2	=	2	현대자동차	27,928,432	24,368,268	14.6%
3	=	3	기아	9,828,354	8,427,180	16.6%
4	=	4	네이버	7,861,215	7,221,564	8.9%
5	=	5	LG전자	7,857,107	5,577,530	40.9%
8	▲	6	KB국민은행	3,608,697	3,403,699	6.0%
7	▼	7	삼성생명보험	3,572,099	3,535,854	1.0%
6	▼	8	SK 텔레콤	3,421,638	3,616,851	-5.4%
9	=	9	신한은행	3,393,315	3,289,197	3.2%
11	▲	10	쿠팡	2,981,801	2,728,047	9.3%
10	▼	11	카카오	2,585,175	2,797,921	-7.6%
12	=	12	하나은행	2,543,718	2,342,709	8.6%
15	▲	13	SK하이닉스	2,394,200	2,196,016	9.0%
13	▼	14	신한카드	2,381,951	2,283,604	4.3%
14	▼	15	삼성화재해상보험	2,246,302	2,199,378	2.1%
16	=	16	우리은행	2,144,340	2,031,593	5.5%
17	=	17	KT	2,019,375	1,967,186	2.7%
20	▲	18	교보생명보험	1,446,503	1,426,906	1.4%
22	▲	19	현대모비스	1,414,900	1,316,160	7.5%
23	▲	20	코웨이	1,340,162	1,293,510	3.6%
19	▼	21	LG생활건강	1,294,569	1,561,938	-17.1%
24	▲	22	CJ제일제당	1,229,074	1,214,488	1.2%
18	▼	23	LG화학	1,190,109	1,568,369	-24.1%
26	▲	24	삼성카드	1,167,593	1,127,437	3.6%
28	▲	25	현대카드	1,126,231	1,090,313	3.3%
21	▼	26	아모레퍼시픽	1,068,785	1,349,348	-20.8%
25	▼	27	KT&G	997,278	1,176,615	-15.2%
27	▼	28	포스코	974,725	1,126,697	-13.5%
29	=	29	현대건설	901,725	934,501	-3.5%
32	▲	30	미래에셋증권	791,194	735,410	7.6%
33	▲	31	CJ올리브영	784,320	723,087	8.5%
31	▼	32	하이브	751,355	742,743	1.2%
30	▼	33	CJ ENM	671,433	757,590	-11.4%
37	▲	34	삼성증권	644,481	605,714	6.4%
36	▲	35	LG유플러스	621,534	616,681	0.8%

Rank 2024	Change	Rank 2025	Brand-KR	Brand Value KRW (2025)	Brand Value KRW(2024)	BV %(25/24)
34	▼	36	GS리테일	621,430	653,764	-4.9%
38	▲	37	배달의민족	605,483	599,468	1.0%
40	▲	38	BGF 리테일	600,664	584,780	2.7%
42	▲	39	NH투자증권	577,363	548,949	5.2%
41	▲	40	키움증권	573,141	549,108	4.4%
35	▼	41	이마트	559,256	624,498	-10.4%
44	▲	42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490,458	459,946	6.6%
N/A	NEW	43	삼성바이오로직스	456,924	NEW	NEW
49	▲	44	다이소	452,249	411,722	9.8%
48	▲	45	두산에너지빌리티	440,621	412,659	6.8%
43	▼	46	LG에너지솔루션	438,428	546,990	-19.8%
N/A	NEW	47	삼양식품	416,917	NEW	NEW
50	▲	48	LG이노텍	407,508	405,639	0.5%
47	▼	49	오리온	401,031	427,824	-6.3%
N/A	NEW	50	야놀자	359,558	NEW	NEW

위기를 기회로 삼은 브랜드의 전략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관된 브랜드 전략으로 기회를 넓힌 브랜드도 찾아볼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바이오 CDMO 시장에서 생산 인프라 강화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로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TOP 50에 첫 입성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도 SMR 등 신규 에너지 시장에 대응하며 브랜드 가치 성장을 이어갔고, 네이버는 커머스, 콘텐츠 사업 강화와 함께 AI 미래 사업에서도 조금씩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금융 산업군에서도 안정적 브랜드 운영이 돋보였다. KB국민은행은 전년 대비 6%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며 브랜드 전체 순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서도 일관된 브랜드 메시지와 디지털 금융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브랜드 가치 7,9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 상승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디지털 투자 플랫폼 고도화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에 주력했으며, 장기적 관점의 투자 철학과 고객 중심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한 점이 브랜드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시대다. 이번 2025년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랭킹은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관된 브랜드 지향점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함을 대변한다. 브랜드는 결코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인 극단의 시야만으로 운영할 수 없다. 민첩한 판단력과 끈기 있는 철학이 함께할 때, 브랜드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작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글. 박영규 인문학자



모든 시작은 어렵다. 주역의 수뢰둔괘(屯卦)는 ‘시작의 어려움’을 상징하며, 위기 속에서 리더십, 결정, 협업, 그리고 때로는 과감한 전환과 여행을 제시한다. 고대 철학이 들려주는 지혜는 오늘날 기업 경영과 창업의 현장에서도 유효하다. 이 글은 시작의 본질을, 주역을 통해 풀어가며, 현실 속 사례를 통해 그 통찰을 조명한다.

1 시작의 본질과 리더십의 중요성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시작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웅변한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가 “응애”하고 울음부터 터뜨리는 것도 시작이 힘들기 때문이다. 주역에서는 시작의 어려움을 ‘둔(屯)’으로 나타낸다. 주역 64괘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창조를 상징하는 중천건괘와 중지곤괘에 이어지는 세 번째 괘가 수뢰둔(屯)괘인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의 애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주역이 다루는 굵이굵이 인생길의 실질적인 스타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수뢰둔괘는 구름을 상징하는 감괘(☵)가 위에 놓이고 우레를 상징하는 진괘(☳)가 아래에 놓이는 복합괘인데, 짙은 먹구름 속에 우레가 갇힌 것처럼 일이 난관에 봉착한 모습을 상징한다. 그렇다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 발을 떼기가 힘들지만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이 있으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 수뢰둔괘의 괘 이름으로 쓰인 둔(屯)자는 땅 속에 있던 씨앗이 발아해서 머리를 빼죽이 내미는 형상으로 시작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글자다. 여리고 여린 새싹이 두터운 지층을 뚫고 나오려면 여간한 노력과 고통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생명의 엘랑비탈은 시작의 어려움을 돌파한 후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수뢰둔괘의 괘사와 효사에서는 시작의 어려움을 유형별로 설명한 후 그 타개책을 일러준다. 우선 시작 단계에서는 물용(勿用)을 강조한다. 시작 단계란 일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므로 모든 것이 매우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말고 신중한 자세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이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이건후(利建侯)’. 수뢰둔괘 괘사에서는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고 조언한다. 제후를 세운다는 것은 확고한 리더십을 갖춘다는 의미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들이 가장 먼저 리바이어던을

세웠듯이 시작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리더십 구축이다. 중심이 바로 서야 일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어 배가 산으로 가고 만다. 휴렛팩커드의 창업자 빌 휴렛과 데이비드 팩커드는 실리콘밸리의 창고에서 회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동전을 던져 CEO를 정했다.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동전던지기에서 이긴 빌 휴렛이 CEO를 맡게 되었고, 거기서 진 데이비드 팩커드는 COO(최고운영책임자)를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해 기업의 리더십 문제를 해결했다. 회사 이름도 그래서 휴렛팩커드가 됐다. 데이비드 팩커드가 동전 던지기에서 이겼으면 회사 이름은 팩커드휴렛이 되었을 것이고, CEO도 팩커드가 맡았을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형제의 난으로 권력을 잡은 태종 이방원에게도 시작이 녹록치 않았다. 외척세력이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종은 흔들리는 민심을 바로 잡고 리더십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천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수도로 정했지만 피바람이 계속되자 정종은 개경으로 환도했다. 태종은 수도를 다시 한양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지, 개경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지 두 가지 안건을 두고 동전을 던졌다. 수도를 옮기는 것이 좋다는 안건에 대해서는 2길1흉의 점괘가 나왔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안건에 대해서는 2흉1길의 점괘가 나왔다. 그래서 조선왕조의 수도는 다시 한양으로 결정되었다. 수도를 옮긴 후 태종은 의정부서사제로 운영되던 정부의 시스템을 육조직계제로 바꾸는 등의 제도개혁을 통해 확고한 리더십을 구축했다.

2 결정의 혼란과 동맹의 전략

주역에서 말하는 시작의 두 번째 난관은 의사결정의 문제다. 회사 주력 상품의 아이템을 A로 할지 B로 할지, 가격은 어느 선에서 책정할지, 마케팅과 홍보는 오프라인을 위주로 할지 온라인을 위주로 할지 등등 시작단계

곳곳에서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봉착한다. 수뢰둔괘 육이(六二) 효사에서는 의사결정을 앞둔 상황에서의 내적 갈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둔여전여(屯如遭如) 승마반여(乘馬班如) 비구혼구(匪寇婚媾), 짝 막혀 있어 머뭇거린다. 말위에 올라탔다 내려다 한다. 도적이 아니라 청혼하러 온 것이다.’ 시작 단계에는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모든 것이 안개처럼 희미하고 불투명하다. 타개책을 찾아야 하지만 쉽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머뭇거린다. 이거다 싶어 생산부서에 오더를 내렸다가도 다시 취소한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온 고객을 경쟁기업의 스파이로 오인할 정도로 분별력이 떨어진다. 한마디로 갈팡질팡이다. 주역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혹시 이 상품을 출시했다가 소비자의 외면을 받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시장의 장기적 트렌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라고 조언한다. 수뢰둔괘에서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잡는다. 효사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여자(女子) 정(貞) 부자(不字) 십년(十年) 내자(乃字), 여자가 정하므로 아이를 갖지 않지만 10년이 지나면 아이를 가진다.’ 여자가 정하다는 말은 시장의 상황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字)는 글자 자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아이를 가진다,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로 쓰였다. 각고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기업에 적용하면 생산한 상품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10이라는 숫자는 산술적 헛수의 의미보다 긴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타포다. 시장이 꿈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내다보고 기술력으로 승부하면 결국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구글이 검색엔진을 시장에 내놔

때 실리콘밸리의 평론가들은 ‘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이에 개의치 않고 긴 호흡으로 승부하는 전략을 택했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멀리 내다보면서 꾸준히 플랫폼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몇 년 후 그들은 검색시장의 최강자 야후를 제치고 실리콘밸리의 정상에 등극했다.

수뢰둔괘 육삼(六三) 효사에서는 시작의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 신생기업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원문의 표현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즉록무우(卽鹿无虞) 유입우림중(惟入于林中), 사슴을 쫓는데 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깊은 산중으로 들어간다.’ 우인(虞人)은 왕이 사냥을 할 때 곁에서 이를 돕는 전문직 관료이다. 사슴을 쫓을 때 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초창기의 기업이 설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지만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 힘든 상황을 의미한다. 그 분야에 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 보니 설립자들은 전망이 불투명한 시장(林中)에 발을 들여놓는다. 기업을 창업한 후 CEO들은 예외 없이 자금 압박에 시달린다. 신생기업을 돕겠다고 선뜻 나서는 캐피털도 없다. 그래서 은행 문을 두드린다. 그마저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은행보다 금리가 월등하게 높은 사채시장에 손을 뻗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시된 주역의 방책은 동맹이다. 수뢰둔괘의 원문을 빌리면 구혼구(求婚媾)다. 결혼으로 화친을 도모한다는 뜻인데 기업으로 말하면 파트너십의 구축이다. 지분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대신 안정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다. 애플은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

해 마이크 마쿨라를 영입했다. 마쿨라가 상당한 정도의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대신 공동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의 지분과 동등한 지분을 떼어 줬다. 창업 초기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경영권의 1/3을 동맹세력에게 할애했던 것이다. 구글도 자신들의 역량만으로는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자 일정 지분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전문경영인 에릭 슈미트를 영입했다.

3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시작

수뢰둔괘에 제시된 타개책들이 시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만능키는 아니다. 키(key)가 제대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내게 맞는 키를 찾아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뢰둔괘의 위쪽에 있는 감괘(☶)는 물을 상징하는데 이 괄의 효를 음효는 양효로, 양효는 음효로 바뀌보자. 그러면 괄 자체가 정 반대의 속성, 즉 불을 상징하는 이괘(☲)로 바뀐다. 그리고 아래에 놓인 진괘(☵)의 상하를 뒤집으면 산을 상징하는 간괘(☶)가 된다. 이괘가 위에 놓이고 간괘가 아래에 놓이는 복합괘를 주역에서는 화산려(旅)라 하는데 산 위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모양을 상징하는 괄다. 불은 최초의 발화지점인 산을 벗어나 자유롭게 활활 타오르는데 그 모습이 일상의 굴레를 털어버리고 여행을 떠나는 나그네를 닮았다. 그래서 나그네 려(旅)를 괄이름으로 썼다. 시작의 어려움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방책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한 후 처음으로 취직한 회사에서 동료들과 마찰을 일으키자 사직서를 던지고 인도 순례길에 나섰다. 잡스는 단순하고 간결한 삶을 모토로 하는 인도 인들에게서 심플함의 위대한 힘을 발견했고, 그 심플함을 애플의 디자인에 입혔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도 본격적으로 기업을 시작하기 전 조선 팔도와 중국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부동산 투자로 제법 큰돈을 벌었지만 조선척식회사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으로 그동안 번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후 앞길이 막막하던 때였다. 조부의 영향으로 한학에 밝았던 이병철은 주역의 가르침대로 무작정 길을 떠났다.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병철은 그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시장조사를 겸한 여행에서 자신만의 키(key)를 구한 이병철은 곧 바로 대우로 내려가 회사를 창업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오늘날 삼성그룹의 모체인 삼성물산이다. ‘궁하면 떠나라.’는 주역의 가르침이 큰 기업을 일구는 원동력이 된 셈이다.

시작의 어려움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방책이다.



전쟁이 남긴 눈부신 가족의 이야기, 아일라

글. 편집실



전쟁에서 시작된 특별한 인연

1950년 6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즉각적인 지원을 결의했고, 지구 반대편의 나라 터키도 이에 응답했다. 5,000명이 넘는 터키군이 머나먼 나라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다. 그리고 그중 한 명, 술레이만 딜비리리(Süleyman Dilbirliği) 하사는 전장에서 잊을 수 없는 한 만남을 하게 된다.

추운 겨울날, 전투 임무 중이던 그는 폐허가 된 마을 한켠에서 홀로 떨고 있는 다섯 살 소녀를 발견했다. 먼지투성이에 얼굴은 얼어있었고, 눈빛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부모를 전쟁통에 잃고, 말도 잃은 채 온몸으로 두려움을 견디고 있었다. 술레이만은 그런 아이를 차마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소녀를 자신의 부대 내로 데려왔고, 먹을 것을 나누고 담요를 덮어주며 진심으로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에게 '아일라(Ayla)'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터키어로 '달빛'이라는 뜻이다. 포화 속에서도 아이의 눈동자는 유난히 맑고 밝았기에, 그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언어도, 국적도, 문화도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가족 이상의 애정이 자라기 시작했다. 아일라는 술레이만 곁에서 점점 웃음을 되찾았고, 그의 무릎에 앉아 장난을 치며 아빠를 대신할 존재로 의지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고통 속에서도 두 사람은 작은 평화를 품은 하나의 가족이었다.

원치 않았던 이별과 긴 기다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냉혹한 현실이 두 사람 앞에 서게 되었다. 술레이만은 터키군 철수 명령을 받았고, 규정상 전쟁 고아였던 아일라를 함께 데려갈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는 수차례 그녀의 입양이나 이송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일라 역시 상황을 직감한 듯 눈물로 그를 붙잡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포옹 속에 이별할 수밖에 없었다.

술레이만은 아일라를 한국의 고아원에 맡긴 뒤, 마음의 한 조각을 떼어놓은 채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후 결혼해 가족을 꾸렸지만, 평생 가슴 한켠에는 아일라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한국에서 머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선명하고 깊은 시간이기도 했다. 매년 한국전쟁 발발일이 다가오면 그는 달빛을 보며 아일라를 떠올렸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반면, 아일라는 술레이만을 잃은 뒤 고아원에서 성장하며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그녀 역시 기억 속에 자리한 따뜻한 품을 잊지 않았다.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나눈 사랑, 이름 없이 불렀던 '아버지'라는 단어. 그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기적처럼, 60년이 흐른 2010년. 터키와 한국의 방송사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 프로젝트를 통해 두 사람의 행방을 추적하게 되었고, 마침내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감동의 재회 현장. 서로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전에, 눈물부터 터졌다. 어린 시절 그 따뜻한 품을 기억하고 있던 아일라와, 단 한 번도 그녀를 잊은 적 없던 술레이만.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되었다.



달빛 아래 다시 만난 이름

아일라와 술레이만의 재회는 단순한 개인적 감동을 넘어, 국경과 언어, 세월조차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과 연대의 이야기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 실화는 터키 사회에도 큰 울림을 주었고, 결국 2017년 터키에서 영화 <Ayla: The Daughter of War(아일라: 전쟁의 딸)>로 제작되었다. 이 영화는 터키 박스오피스에서 큰 흥행을 기록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전쟁 영화가 아니다.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인간다운 온기와 사랑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작품이다. 영화 속 술레이만은 전쟁 영웅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일라는 단지 전쟁 고아가 아니라, 누군가의 품 안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였음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지금도 아일라와 술레이만의 이야기는 한국과 터키 양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실화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진심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해본 적이 있나요?”

“전쟁도, 시간도 갈라놓을 수 없는 인연을 믿고 있나요?”

한 줄기 달빛처럼 어두운 시절을 밝혔던 아일라.

그 이름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깊은 여운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비에 또 귀치귀 않고

비에 또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보라에도, 여름의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과 욕심 없는 마음으로
결코 화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웃음 짓고
하루에 현미 네 홉과 된장과 채소를 조금 먹고

모든 일에 내 잇속을 따지지 않고
들판 소나무 숲 그늘 아래 작은 집에 살고

동쪽에 아픈 아이가 있다면
가서 돌보아 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가 있다면
가서 벅짐을 날라 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두려움을 달래주고
북쪽에 다툼이나 소송이 있다면
의미 없는 일이니 그만두라 말하고

가뭄이 들면 눈물 흘리고
추운 여름이면 걱정하며 걷고

모두에게 바보라 불려도,
칭찬에도 미움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미야자와 겐지



업무 밖에서 나를 키우는 시간

자기계발은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번 여름호에서는 임직원 여러분의 자기계발 활동에 대한 생각과 실천을 알아보는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응답에는 '외국어·자격증 공부', '운동', '문화 생활' 등 다양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를 성장시키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바로 지금 SGI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설문 참여: 354명

이번호
당첨자

임현우 삼성지점 선임, 김충균 신용평가부 부장, 천장현 상품지원부 선임,
김태호 인천경원본부 팀장, 오용민 IT운영지원부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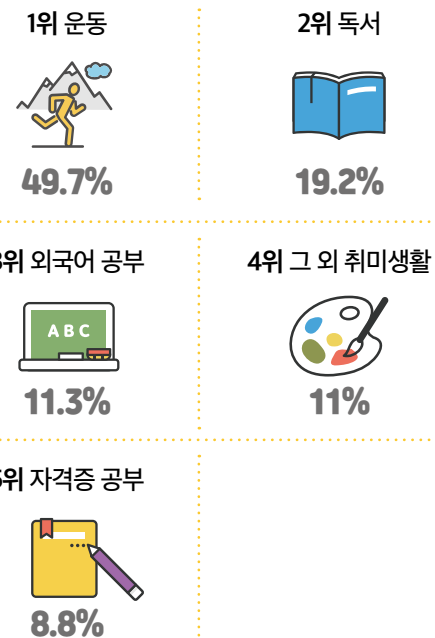
※ 참여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해 상품권(교보문고)을 드립니다!



1. 회사 업무 외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을 내는 편인가요?



2. 어떤 종류의 자기계발을 하고 있나요?



3. 자기계발은 보통 언제 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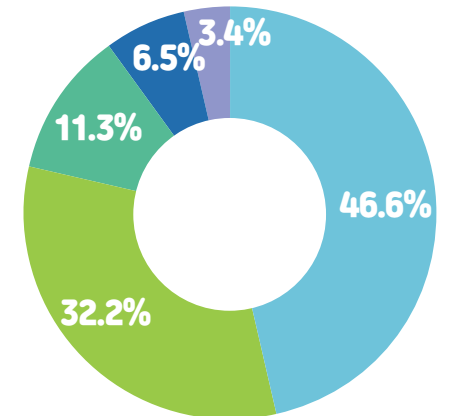


4.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지 못한다면 이유가 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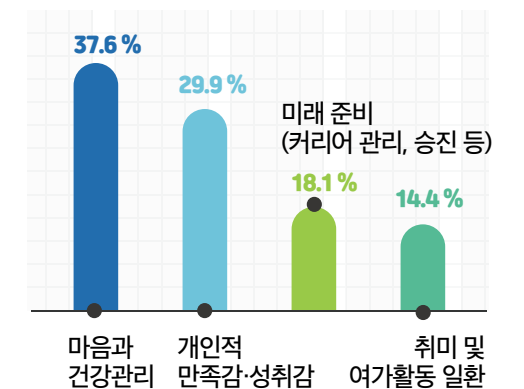
5. 자기계발의 중점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1위 46.6% 꾸준한 실천(10분이라도 매일)
- 2위 32.2% 관심 분야(흥미와 자율성 기반)
- 3위 11.3% 계획보단 실행(일단 시작해 보고 생각)
- 4위 6.5% 시간 대비 효율(짧은 시간에 제대로)
- 5위 3.4% 업무 역량강화(당장 업무에 도움되는 것!)



6.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1위 37.6% 마음과 건강관리
- 2위 29.9% 개인적 만족감·성취감
- 3위 18.1% 미래 준비(커리어 관리, 승진 등)
- 4위 14.4% 취미 및 여가활동 일환



성과와 헌신이 만든 결과, 워드 아너스 & 워드 플러스 수상자 인터뷰

SGI서울보증의 '워드 아너스' 및 '워드 플러스' 수상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이야기! 탁월한 업무 성과는 물론, 현장에서의 치열한 고민과 팀워크, 그리고 일하는 태도까지. 이번 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이들의 진심 어린 소감과 배움을 전합니다.

정리. 편집팀



전진아
구상지원부 대리

1. SGI 워드 아너스를 수상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부장님, 팀장님, 동료들 그리고 유관부서 직원들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 생각하며 투표로 선정된 것만큼 저를 선정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구상분야에서 민원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구상 민원은 타 분야에 비해 민원의 강도와 수위가 높은 편인데, 실무부서의 협조와 유관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점이 직원들의 공감과 신뢰를 이끌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저는 경청의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료의 한마디나 고객의 목소리 속에 문제의 본질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 안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변화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허수영
창원지점 선임

1. 부산경남본부, 심사부, 신용평가부 등 유관부서 직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탈고객 재유치 과정에서 고객관점 업무처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 결과 포상으로 이어져 업무적 자부심도 고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와 고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WITH' 비전에 부합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2. 선입견을 극복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선택할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분석 과정에서 고객 의사결정엔 요율뿐만 아니라 리드타임, 담당의 업무숙련도 등 복합적인 요인이 관여됨을 파악했고, 우리 회사가 우세할 수 있는 전략을 최대한 실행했습니다. 또한, 관리자금 키맨이 제 또래 직원들과의 소통에 관심이 많으셨기에 최근 유행하는 인터넷 밈(meme)을 가르쳐드리는 등 업무 외적으로도 인간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3.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평소 업무에 임합니다. 보증보험 업무 특성상 저는 저 자신을 고객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보단 현장에서, 문서보단 사람으로 고객을 가장 잘 아는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도저히 실마리가 풀리지 않던 일이 대표자 면담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이번 고객 재유치 과정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가치를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별 수상 질문

Q1. 먼저 SGI 워드 아너스에 선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Q2. 이번 수상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Q3. 평소 업무를 하시면서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나 습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하태현
전략영업부 과장

1. 맡은 업무를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전략영업부에서 처음 맡았던 공사이행과 ABS 업무가, 이후 혁신영업센터로 갑작스레 발령받아 시장개척 임무를 맡았을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운 좋게 신입사원 때 배운 상품들을 조합해서 전략영업부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신입사원 때 처음 업무를 알려주신 구·전략영업부 선배님들, 현재 전략영업부 부장님 팀장님, 선배 직원들을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유관부서 선배분들까지 같이 고민해주셨기 때문에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 근거를 확인하면서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시장에서 돌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추정과 사실로 구분하여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시장 개척할 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선배분들의 노하우를 듣고 나름대로 근거를 확인하면서 정리해 나간 게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김민규
데이터분석부 선임

1. 안녕하세요! 이번에 SGI 워드 아너스라는 뜻깊은 포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미수채권평가모형을 직접 개발한 노력이 사내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보람 있는 프로젝트였고, 이번 포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조직 전반에 더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무엇보다도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업무영역에 대해 주도적으로 분석을 기획하고 끝까지 책임졌던 자세를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모형을 직접 개발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능도 좋고 설명력도 챙길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그 열정과 책임감을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3. 단순히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왜 이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이라는 일이 사람의 판단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업의 언어로 설명하고 함께 이해하는 자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작은 일이라도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와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가짐은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팀별 수상 질문

- Q1. 소속 부서와 팀 구성, 주요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Q2. 이번 수상과 관련된 프로젝트나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Q3. 끝으로 수상 소감과 함께 팀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업회생부 특별채권팀_배성진 대리

1. 안녕하세요, 팀원들과 다 같이 SGI 위드 플러스를 수상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희는 기업회생부에 소속된 특별채권팀으로 영업지점에서 발급한 보증서 중 회사로 청구된 고액 구채권 및 신채권을 구상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작년부터 청구 건 급증에 따라 고액보험사고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구상 업무지침을 개정해 특별채권 기준이 유효보험가입금액 기준 기존 10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팀의 업무량도 증가하였으나, 합리적이며 회수율 높은 구상 방안에 대하여 팀원 모두가 함께 고민했고, RM 제도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모두가 힘을 합쳤습니다. 또한 구상 노하우를 Case Study로 정리해 표준화에 힘쓴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3.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팀장님과 팀원들, 그리고 묵묵히 고생하는 구상 부서 직원들의 노고와 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식을 알려주시고, 즐거운 분위기로 근무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선배 팀원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상지원부 보험사기대응팀_이인해 대리

1. 보험사기대응팀(SIU)은 지능화·조직화 되어가는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 필요성에 따라 24년 7월 보험사기대응 전담 조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사기 조사 및 사후관리, 보험사기 및 부실계약 예방(방지)업무, 보험사기 관련 제도 개선 및 대외협력 업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상센터 3팀은 총 8명으로, 다양한 신용보험 상품의 보상심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 금융보상센터와 보험사기대응팀의 협업 검토를 통해 정형화되어 발생하는 허위 임대차계약 의심항목을 추출하고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조사업무를 금융보상센터로 이관하여 해당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보상 심사 현업부서인 금융보상센터 직원분들의 신속한 업무이해와 업무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25.2분기 임차자금 보상심사 소요기간(25.1분기: 147.6일→25.2분기: 83.1일)을 대폭 감축시켜 피보험자의 만족을 끌어낼 수 있었으며, 심사 업무와 연계된 조사실시를 통해 회사 손해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3. 매우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막내 직원 김덕용 대리,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건을 파헤쳐주시는 이병주 과장님, 강준호 과장님, 모든 팀원들이 믿고 따르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봉준 팀장님. 아직은 정비되지 않는 신설팀이라 업무처리 과정 등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구성원 모두 열정적으로 수행해주셔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업무 방식의 변화에 잘 적응하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성지점_임선미 대리

1. 우리 팀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부지점장님을 중심으로 창구 실무직원이 영업과 청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영업, 계약 및 심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수행하며, 고객 신뢰 확보 기반으로 회사 및 지점 수익 창출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업하고 있습니다.
2. 이번 수상은 고객 보험료 34.1억 원 인수 및 실적초과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성과 덕분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내외부 고객 니즈를 적시 충족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여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심사부 등 상호 간의 의견 조율부터 보증리스크 분석, 내·외부 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등 모든 영역에서 팀원들이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며, 고객 신뢰 기반의 보증보험 발급을 하기까지의 모든 시간 서로 협업하며 최선을 다한 것이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3. 우선, 약 5개월간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저와 같이 '동행' 해주신 부지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점은 개개인 각자의 노력보다는 직원 모두의 헌신과 열정으로 성과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운 좋게 위드 플러스를 수상하긴 했지만, 그 중심에는 삼성지점 모든 직원들이 하나되어 One-Team으로 움직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부 시설안전팀_심현준 대리

1. 우리 팀은 회사의 시설 전반을 관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다양한 만큼 팀원이 8명이나 되는데요, 이상준 팀장님의 리더십 아래 이형선 대리[서무, 임대차관리(부)], 심현준 대리[부동산·임대차관리(정)], 한상구 선임[비품·싸인물관리], 김남건 대리[시설관리(미화, 전기, 소방)], 장종섭 전문위원[시설관리(영선, 기계설비)(부)], 이정민 주임[시설관리(영선, 기계설비)(정)], 김지훈 주임[안전보건 관리]이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우리 팀은 부서 이전 및 재배치와 본사 사옥 노후 냉방설비 개선 공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SGI 위드 플러스를 수상하였습니다. 본사 인원 증가에 따라 인근 보령빌딩으로 일부 부서를 이전하고, 부서 의견을 반영해 재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노후 냉방시스템을 교체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감 및 ESG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1' 였다고 생각합니다. 팀원 모두가 본인이 지닌 1(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팀원 간, 그리고 타 부서의 임직원분들과 Interaction(소통)하여 Inspire Customers(대내외 고객)라는 차별화된 경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3. '팀워크를 발휘하여 목표 이상의 성과를 실현하고 회사 발전에 기여한 팀'을 포상한다는 SGI 위드 플러스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팀이 6개월간 노력하고 흘린 땀이 우리 회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또한 우리 시설안전팀의 모든 팀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김치룡 본부장님과 배주만 부장님께서도 시설안전팀의 모든 팀원을 대표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직원이 자랑스러운 회사, 부모가 감동한 시간

노동조합 해외연수

SGI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은 지난 6월, 직원들의 부모님을 위한 ‘후쿠오카 효도 여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가족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뜻깊은 인연을 맺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직원 두 분의 부모님께서 직접 전한 따뜻한 여행 후기를 통해, 그 특별했던 순간을 함께 나눠 봅니다.

글. 김수진 안양지점 부지점장의 부모님/
손형래 차세대추진부 과장의 부모님



평생 기억에 남을 감동의 시간

김수진 안양지점 부지점장의 부모님
늦은 나이에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인 SGI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에서 마련해 준 이번 후쿠오카 효도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저에게 마음 깊은 울림과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동안 후쿠오카, 고쿠라, 오이타, 유후인, 히타시를 여행하며 일본의 전통과 자연, 온천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나가타다이샤 신사에서는 신비로운 일본 신화를 접할 수 있었고, 고쿠라성과 모지항 레트로 거리에서는 고즈넉한 일본의 역사를 체감했습니다. 특히 오이타의 히가시시이 야노타키 폭포와 벳푸의 지옥 온천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나 이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이틀째 저녁 만찬 자리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안내로 조용히 만찬을 즐기던 중, 갑자기 상영된 가족들의 영상편지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따뜻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고, 결국 저 역시 딸과 아들이 보내온 영상편지에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딸과 아들을 뒷바라지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어머니의 자리에서 가족의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어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공항에서는 회사에서 준비한 정성스러운 홍삼 선물을 받고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주선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의 건강까지 챙기는 SGI서울보증보험의 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친절하게 인솔해 주신 노동조합 김응철 부위원장님과 전신구 사무국장님, 그리고 항상 밝은 얼굴로 설명과 안내를 아끼지 않으신 여행사 가이드님 덕분이 컸습니다. 세심한 배려와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모든 일정이 즐겁고 안전했습니다. 받은 대우를 생각하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좋은 회사인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추억을 마음에 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SGI서울보증보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형래 차세대추진부 과장의 부모님

노부부가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일정 맞추기도 어렵고, 나이 들수록 여러 이유로 망설이게 되지요. 그런 저희에게 사위와 딸이 “회사에서 효도 관광을 보내드린다”라며 조심스럽게 건넨 제안은 뜻밖의 선물이자 큰 감동이었습니다. 자식의 손에 이끌려 가는 여행이 아니라, 사위 부부의 정성과 사위 회사 노동조합의 배려가 더해졌기에 그 의미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6월 둘째 주, 저희 부부는 후쿠오카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도착 후 처음 찾은 무나가타다이샤 신사는 고즈넉한 풍경과 함께 교통안전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장소였고, 설명을 들으며 유래를 알고 나니 더욱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첫날 저녁, 온천 호텔에서 피로를 풀고 함께 여행 온 분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같은 회사에 자녀가 있고 연령대도 비슷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하루 만에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둘째 날엔 고쿠라성과 모지코 항을 둘러보았고, 관광 중엔 신기하게도 비가 멈춰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 꼭대기에서의 커피 한 잔, 바다와 철도문화가 어우러진 항구 풍경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노동조합이 준비한 정찬 만찬 자리에서는 사위 부부가 마련한 가족 영상이 상영되어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라며 웃던 모습은 지금도 눈시울을 붉히게 합니다.

셋째 날은 벳부 온천과 유후인, 히타 시를 둘러보며 조용한 시골 풍경 속에서 마음까지 쉬어가는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 날엔 다자이후 텐만구 신사에서 손자의 건강과 학업을 기원하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짧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여정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처음 만난 분들과 점점 가까워지며,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주는 따뜻한 정이 오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이번 여정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기억에 남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세심한 배려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산품 체험과 정성스러운 선물, 곳곳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주신 부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의 배려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행을 통해 사위가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고, 사위의 일터가 단지 직장인 아닌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공간’임을 느낄 수 있어 더욱 감사했습니다.

후쿠오카의 맑은 하늘과 따뜻한 온천만큼이나, 함께했던 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와중에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사랑하는 사위 부부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경영과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다

KMA 최고경영자조찬회



외상으로 쌓은 신뢰, 보험으로 지킵니다. ‘매출채권신용보험, 그 현장 홍보 속으로’

2025년 3월 14일, 우리 회사는 기업공개 절차를 마무리하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며 역사적인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숨 가쁜 준비 과정과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다 같이 협력하여 상장회사로 전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글. 김종화 매출채권부 대리



경영 인사이트와 네트워크의 장, KMA 조찬회

한국능률협회(KMA) 최고경영자 조찬회 행사는 1973년 6월 출범하여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산업계, 학계, 정부 등 총 1,300여 명의 국내외 저명인사가 매월 국내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에게 경영 인사이트를 제공해 온 행사입니다. 시의성 있는 강연 주제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 기회 제공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KMA 최고경영자 조찬회는 622회차로, 그랜드하얏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400여 명의 기업 경영자와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6월 27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홍춘욱 이코노미스트가 '대선 이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 공통 분모가 '경제 살리기'였다는데 주목하며, 모두가 지금의 경제 환경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을 비롯한 내수 경제의 대응 전략을 논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유명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수출입 동향'의 분석을 통해 미국 트럼프 관세 쇼크의 여파가 자동차 및 석유화학 분야에 미쳤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우리 기업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새벽을 여는 부스, 고객을 만나는 시간

우리 회사는 매출채권신용보험 홍보 목적으로 2018년부터 KMA 조찬회에 참가하기 시작하여, 올해도 현장에서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채권신용보험 도입은 기업의 채권관리 시스템에 큰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이 선행되는 Top-Down 방식의 영업이 효과적입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기업들 중 D* Inc, 동*케미컬 등 신규 고객이 매출채권신용보험을 신규로 도입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해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지만, 매출채권보험부에서는 이 어둠을 비출 신규 고객의 빛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스 준비는 모두가 잠든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조찬회는 6시 30분에 시작하지만 참석자들이 행사장에 입장하기 전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므로, 오전 5시부터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판촉물과 상품안내자료를 정리하여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외상거래의 안전벨트”, “외상거래, 모험 하시겠습니까? 보험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고마워하셔도 됩니다”

“외상으로 쌓은 신뢰,
보험으로 지켜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 우리 상품을 소개하는 부스 홍보물들로 고객들의 시선을 끌고, 부서원들이 직접 고객에게 다가가서 상품을 홍보합니다. 상품을 직접 홍보하는 경험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매일 직접 고객과 소통해야 하는 매출채권보험부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경험입니다.

조찬회 행사가 시작하기 직전과 강의 중간의 쉬는 시간이 영업의 기회입니다. 부서원들은 새로운 고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명함을 받아 상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립니다. 홍보 부스를 찾아주시는 고객들을 위한 선물도 잊지 않고 챙겨드리며 우리 회사와 상품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상품을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사에서 건네는 “덕분에 좋은 상품 잘 쓰고 있어요”라는 말이 아침의 단잠을 포기한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경제 환경에 대한 위기감으로 우리 상품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홍보 부스에 마련된 상담 신청 카드를 적어주시거나 부서원 명함을 받아서 연락을 주시기도 합니다.

신뢰를 쌓는 연결,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으로

매출채권보험부에서는 한국능률협회(KMA), 한국표준협회(KSA)와 연계하여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 방문 설명회, ZOOM을 통한 화상 회의를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네이버 배너광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고객 접점을 확보한 후에도 실제 증권 발급까지는 오랜 기간 보험 조건을 조율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과 유대를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매출채권보험부는 “외상으로 쌓은 신뢰, 보험으로 지켜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삶을 빛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물레 위의 순간

임혜련 부평지점 과장 &
박지은 남대문지점 선임

글. 박지은 남대문지점 선임
사진. 홍승진 실장



평소 예쁜 그릇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지만,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볼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바쁜 일상 속 소중한 기회를 얻어, 부평지점 임혜련 과장님과 함께 퇴근 후 도자기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체험하러 가던 날, 올여름 들어 가장 세찬 장대비가 쏟아졌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숨을 고르며 공방 문을 열었을 때, 시원하게 들리는 빗소리와 도자기, 대나무로 둘러싸인 한옥이 어우러져 더욱 운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오롯이 나의 손끝에만 집중하는 시간

도자기는 성형, 건조, 초벌, 유약 입히기, 재벌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이날은 다양한 성형 기법 중에서도 물레 기법을 활용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물레 기법은 회전하는 원판 위에 흙을 올려놓고 손으로 형태를 빚어가는 방식으로, 손의 압력과 움직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물레 작업은 오른발로 물레가 회전하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양손으로 흙을 만져야 하는 만큼 매우 섬세한 작업이다. “물레는 미대생들도 처음엔 다들 어려워하는 작업이라, 오늘은 못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 덕분에 한결 편한 마음을 가지고 물레 작업에 돌입할 수 있었다.

임혜련 과장님은 사랑스러운 두 아들을 위한 요거트볼을, 나는 스스로를 위한 밥그릇과 접시를 빚기로 했다. 물레 작업의 첫 단계는 엄지손가락을 흙덩이의 가운데 넣고, 바깥쪽으로 밀면서 구멍을 뚫는 것이다. 이후 손가락으로 흙을 위로 끌어올리며 원하는 높이와 두께로 만들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물레를 돌리며 다듬는다.

오른발로 조절하는 물레의 속도와 손가락에 들어가는 미세한 압력에 따라 흙의 모양이 순간순간 달라지기 때문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만 하는 작업이었다. 덕분에 눈앞의 흙과 오른발,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하며 복잡한 일상과 잡생각들은 모두 잊을 수 있었다.





“도자기에는 정답이 없어서
어떤 모양이 맞고,
어떤 모양은 틀리고가 없어요.
스스로가 만족하는 모양을 만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답이 없는 도예,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다

“도자기에는 정답이 없어서 어떤 모양이 맞고, 어떤 모양은 틀리고가 없어요. 스스로가 만족하는 모양을 만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선생님이 체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강조한 말처럼, 한 덩이의 흙을 어떤 모양으로 완성할지는 스스로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했다.

처음 만든 도자기는 어설프었지만, 어느 정도 원하는 모양에 가까워졌을 때 만족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첫 그릇의 성공에 욕심이 났는지, 두 번째 도자기를 만들 땐 “이 부분이 조금 약해져 있다”라는 선생님의 경고에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계속 손을 대다 보니 결국 도자기가 찢어지고 말았다. 순간 ‘그냥 선생님이 멈추라고 말해줬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도자기는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선생님의 말처럼 결국 어디에서 만족하고 멈출지는 물레를 돌리는 본인이 깨달아야 하는 지점이었다.

찢어진 두 번째 도자기를 버리고 새롭게 도자기를 빚을 때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이미 나왔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과하게 만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적당한 모양이 나왔을 때 만족하고 물레를 멈출 수 있었다. 더 많이 만진다고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몰입하는 과정 속에서도 잠시 물레를 멈추고, 내가 정말 원하는 모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번 도자기 체험을 통해 일상에서도 회사에서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때로는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돌아보는 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삶과 닮아 있는 물레 체험은 특별한 추억과 함께 내게 소중한 지혜로 오래도록 남을 것 같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돌아보는
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make pottery

향기로운 퇴근,



나만의 향을 찾는 시간



perfume

직장인의 삶은 일정 주기로 나누어 흘러가곤 합니다. 주, 월, 분기, 연간이라는 시간 단위에서 집-회사-집-회사의 쳇바퀴를 돌다보면 어느새 한해가 훌쩍 지나가 있곤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러 해를 보내고 올해로 만 15년, 60번의 분기, 180개월, 무려 780주를 보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과 달리 올해는 제게 매 분기별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분기에 한번, 짧지만 진한 여운을 남기는 동아리 '소소한 공방'의 활동이 그 특별한 시간입니다.

글. 이지영 상품지원부 차장

향기로 떠나는 작은 일탈

여름이 찾아오기 시작할 무렵의 6월 둘째 주, '소소한 공방'의 나만의 '아로마 향수 & 인헤일러 만들기 클래스' 체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홍대의 감성 가득한 스무드 공방. 바쁘게 지나가던 일상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듯 향기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복되는 '집-회사-집'의 루틴에 갇힌 하루 속에서, 짧지만 진한 여운을 남겼던 나만의 향수 만들기 체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낯선 듯 익숙한 공간에서 시작된 체험 "So the moment has come again~ the time to say goodbye~"

요즘 들어 그 누구보다도 반가운 맑고 청량한 그녀의 목소리, 우리 회사의 퇴근송이 나오자마자 오늘 체험을 함께할 같은 부서 팀장님 두 분과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부장님께 "내일 뵙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퇴근 시간 홍대입구역 3번 출구를 따라 걷다 보면 아담한 간판이 보입니다. 스무드 공방은 아로마 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가 열리는 공간으로, 은은한 조명과 우드톤의 인테리어가 맞아주는 곳이었습니다. 이날 클래스는 총 1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여러 부서의 동료들이 직급을 막론하고 자유롭게 어우러졌습니다. 평소 인사만 겨우 나누었던 얼굴들과 기회를 빌려 마주 앉으니 어색함보다는 반가움이 먼저였고, 시작 전부터 자연스럽게 웃음이 오갔습니다.

강사님의 안내에 따라 총 6가지 아로마 향을 시향해 보며 나에게 맞는 향을 고르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라벤더, 베르가못, 일랑일랑, 시더우드 등 향 하나하나에 각각의 특징과 효과가 담겨 있었고, 그 향들을 조합해 오직 나만의 향수를 직접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다양한 아로마 오일을 시향하며 나와 맞는 향을 찾아가다 보면 뽀족하게 날 서 있던 긴장과 불안한 감정이 잠재워지는 것 같기도 했고, 알 수 없는 조



합의 고약한 향을 만들어 함께 앓은 동료들에게 짓궂게 공유하며 장난을 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의 스트레스가 날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테이블의 프레시한 후배는, 본인만큼이나 상큼하고도 기분 좋은 향기를 만들어내 고전하고 있던 40대 선배들에게 "오!" 하는 감탄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조용한 몰입과 작은 대화의 힘

우리 동아리 대부분의 활동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 이번에 체험했던 향수 만들기 체험의 가장 큰 특징은 I(내향) 성향이든 E(외향) 성향이든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페이스로 활동을 하며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만의 향을 만드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고, 서로의 선택을 공유하며 조심스레 의견을 나눠 보기도 합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잊고 있었던 동료의 웃음도 오랜만에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손가락을 오밀조밀 움직이며 몰입하다 보면, 평소 손에 쥔 스마트 폰 속 유튜브와 인스타로 도파민에 중독된 뇌가 해독되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더불어 팀을 넘어서, 직급을 넘어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는 순간이 주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공방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향을 맡고, 손으로 작은 병에 담아내는 과정은 마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완성된 향수는 바로 사용하지 않고 2주 정도 숙성 후 사용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뿌듯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나만의 향, 나만의 기억

오늘 체험에서는 향수뿐 아니라 '인헤일러(휴대용 아로마 스틱)'도 함께 만들 수 있어 선택의 폭도 넓었습니다. 직접 만든 인헤일러는 출근 전이나 스트레스받을 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힐링 도구가 되었고, 내가 만든 향수는 내 책상 위에서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은 단순한 '향수 만들기'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고, 동료와의 관계를 다시금 느껴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홍대라는 지역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퇴근 이후의 시간을 다채롭게 쓸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 나 혼자서, 홍대라니요. 사춘기의 문을 두드리다 못해 쿵쾅 열어버린 중1 딸과 아직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초4 딸을 둔 워킹맘에게 더 없이 소중한 자유!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분기별 1번씩 찾아오는 이 시간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직장이라는 공간 속에서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주며, 동시에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풀어주는 촉매제가 되어줍니다.

혹시 퇴근 후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지만 망설였던 분이 계신다면, 사내동아리 '소소한 공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꼭 동아리 신청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지역별로 나만의 향수 만들기 공방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무거운 준비나 큰 결심 없이도, 신청 버튼 한번만으로 일상에 소소한 행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퇴근 이후의 시간이 조금은 길게 느껴졌던 하루, 향기로운 기억 하나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저는 벌써 다음 분기, 가을의 문을 두드릴 즈음 찾아올 소소한 공방의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나만의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의 시작 국내 워터파크 TOP 5

여름 햇살이 반짝이는 계절, 시원한 물속에
푹푹 뛰어들어 짜릿한 스릴을 만끽하는 워
터파크는 최고의 피서지다. 스릴있는 놀이
기구부터 가족단위로 방문하기 좋은 워터파
크까지, 이번 호에는 전국 워터파크 5곳을
소개한다.

글. 편집부



국내 워터파크의 상징 캐리비안 베이 (경기 용인)

워터파크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 캐리비
안 베이. 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로, 실내·외 공간을 오
가며 수십 가지의 어트랙션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메가
스툼', '아쿠아루프', '타워 부메랑고' 등 스릴 넘치는 슬라
이드는 매년 여름마다 수많은 방문객들의 도전을 기다린
다. 야외 파도풀 '씨 웨이브'에서 비치체어에 누워 즐기는
한낮의 여유, 실내 찜질방과 스파에서의 느긋한 힐링까
지. 에버랜드와 인접해 있어 가족 단위 나들이에도 제격
이다.



이집트 테마 속 짜릿한 하루 오션월드(강원 홍천)

비발디파크 내 위치한 오션월드는 단연 강원도의 대표 워
터파크다. 이집트 피라미드를 연상케 하는 외관부터 이국
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슈퍼 부메랑고', '더블 토네
이도' 같은 스릴 어트랙션으로 젊은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인피니티풀과 야외 유수풀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난
기분 좋은 여유를 선사한다. 당일치기 여행은 물론, 리조
트형 숙소와 연계된 패키지를 이용하면 이틀 연속으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바다와 맞닿은 물놀이터 디오션 워터파크(전남 여수)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션뷰 인피니티풀'을 갖춘 워터파크.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는 말 그대로 '바다 위 워터파크'라
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유수풀과 실내 슬라이드, 유아용
키즈풀은 물론, 외부로 이어진 인피니티풀에서는 다도해
를 배경으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여름 시즌에는 물총 축제, 야간 음악 공연 등도 진행
돼 여수 밤바다와 함께하는 워터파크라는 유일무이한 경
험을 선사한다. 스파시설과 놀이방, 수유실 등도 잘 갖춰
져 있어 가족 여행에 강력 추천한다.



남태평양을 닮은 낙원 롯데 워터파크(경남 김해)

남부권 최대 규모의 롯데 워터파크는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를 콘셉
트로 한 이색적인 분위기가 매력이다. 135m 규모의 파도풀 '자이언
트 웨이브'는 최대 2.4m 높이의 파도를 자랑하며, 실내·외 슬라이드
와 키즈존, 스파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시설 외에도 롯데호텔과의 연계, 깔끔한 샤워시설, 풍성한 먹거리 등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 연인, 가족, 친구와 모두 함께 즐기기에 좋은
복합 워터 리조트다.



제주 여행에 물놀이를 더하다 신화 워터파크(제주 서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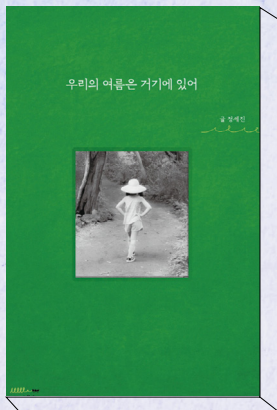
제주도 여행에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고 싶다면 신화월드 내에 위치
한 신화 워터파크를 추천한다. 제주 최대 규모의 실내·외 워터파크
로, 무려 230m에 달하는 이중 슬라이드부터 어린이 전용 키디풀, 야
외 인피니티 스파존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휴양과 체험,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곳은 제주 여행의
피날레로 손색없다. 야경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대 입장도 추천할 만
하다.

여름, 책 속으로 빠져드는 순간



한여름 햇살 아래, 피서지에 펼쳐 얹은 한 권의 책은, 바쁜 일상 대신 마음의 바닷가를 열어준다. 바닷가 그늘이나 캠핑장 테라스, 또는 일상의 작은 휴식 공간에서 '지금 이 순간'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 들어 줄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떠나기 전, 마음의 여행을 미리 시작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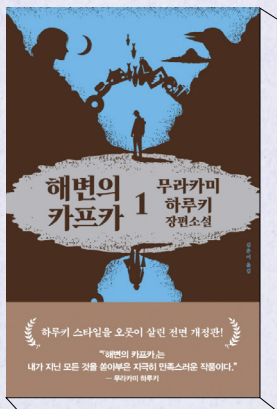
정리. 편집실



우리의 여름은 거기에 있어

지은이: 정세진, 펴낸 곳: 개미박스, 발행: 2023년

이 책에 주로 나오는 제주도, 여름방학이라는 두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책의 서론부터 저자의 딸아이 초등학교 여름방학을 제주에서 보낸다는 말이 시작된다. 제주도 한 달 살기는 누구에게나 로망일텐데, 저자는 매년 여름이면 제주도로 향한다. 여름방학의 설레이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름 안부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썼다는 저자의 소개가 이 책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넘기면 나오는 제주의 풍경들, 글을 읽어도 좋고 그냥 바라만 봐도 좋다.



해변의 카프카

지은이: 무라카미 하루키, 펴낸 곳: 문학사상, 발행: 2024년

무라카미 하루키 최고의 소설이라는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던 '해변의 카프카'가 전면 개정판(제3판)으로 16년 만인 지난해 새롭게 출간했다. 소설의 주인공 다무라 카프카는 현실과 환상 사이를 오가며 복합적인 형태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평소 이십대에서 삼십대에 이르는 젊은 남성을 주요 인물로 설정해 이야기를 써왔던 작가는 '해변의 카프카'에서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굳어지지 않은 열다섯 살 소년을 화자로 내세워 삭막하면서도 근사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그려냈다.



여름 빛 아래

지은이: 황수영, 펴낸 곳: 별빛들, 발행: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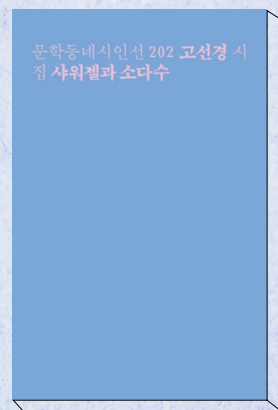
'여름 빛 아래'는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문학 활동을 하는 황수영 작가의 여섯 번째 산문집이다. 이어지는 듯 끊어지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황수영. 봄인 것 같다가도 겨울이거나 여름이던 날처럼의 계절을 닮은 작가. 책에는 그런 황수영의 외로움과 슬픔, 그 속에서 더듬는 희망과 시 그리고 생활이 있다. 황수영이 온몸을 던져 생활하고 자신의 세계를 옮긴 것이다. 덕분에 우리는 황수영의 세계 안에서 계절을 음미하는 법을 터득할 것이다. 그리고 각자가 스스로의 계절을 감각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빛을 따라서

지은이: 권여름, 펴낸 곳: 자이언트박스, 발행: 2023년

'작은 빛을 따라서'는 내장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필성슈퍼를 운영하는 가족의 이야기다. 여섯 식구를 책임지고 있는 슈퍼는 주변에 입점한 대형마트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한다. 엄마와 아빠는 손님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해보지만 소용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 은동은 자신의 오랜 꿈, 배우가 되기 위해 '연기 아카데미'의 학원비를 모으고 있다. 그렇게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져만 간다. 필성슈퍼 가족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위젤과 소다수

지은이: 고선경, 펴낸 곳: 문학동네, 발행: 2023년

체념과 무기력만 남은 듯한 세상에 희망이라는 농담을 던지며 자신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청년 세대를 그리는 시인, 고선경의 시집 '사위젤과 소다수'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오래된 테이프를 재생하듯 한 시대를 풍미한 문화 요소들을 배치해 읽는 이를 공감과 향수로 가득한 세계 속으로 끌어들인다. 미지의 내일을 상상할 수 있기에 앞으로를 다짐하고, 사랑을 약속하며, 끝없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아몬드

지은이: 손원평, 펴낸 곳: 다즐링, 발행: 2023년

2017년 처음 출간된 이래 국내 종이책 기준 100만 부 판매를 기록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 셀러 '아몬드'가 절판기간을 거쳐 재출간됐다. 책 속 주인공인 16세 소년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도 표현하지도 못한다. 선천적으로 감정표현불능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윤재를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우려는 엄마와 할머니의 극진한 노력과 사랑 아래 윤재는 가까스로 별 탈 없이 자라난다. 그러나 16세 생일, 크리스마스에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잃게 되면서 윤재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다.

혼자 떠나도 충분한 이유, 요즘 캠핑 유튜브

장비 하나, 차량 한 대, 그리고 자신만의 리듬만 있으면 떠날 수 있는 솔로 캠핑. 자연 속 하루를 담아내는 유튜브 채널들이 주는 매력은 보는 즐거움을 넘어, 살아보는 상상을 자극한다. 누군가는 조용히 나무를 깎고, 누군가는 비를 맞으며 텐트를 친다. 때론 반려견과 함께, 때론 아무 말 없이. 이번호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연과 마주하는 국내 캠핑 유튜버들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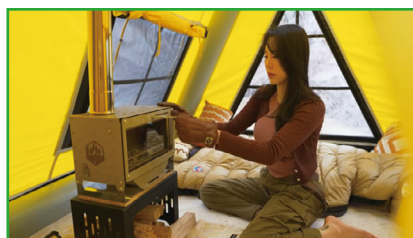
FISH13 구독자수_182만 명, @FISH13

‘FISH13’은 차박과 오버랜딩을 중심으로, 혼자만의 자연 속 캠핑을 담아내는 유튜브 채널이다. 랜드로버 디펜더, 지프 랭글러 등 다양한 SUV를 기반으로 루프탑 텐트와 감성 장비를 세팅하고, 비 오는 날에도 야영을 즐기는 일상이 브이로그 형식으로 펼쳐진다. 조용한 풍경과 진솔한 일상, 장비에 대한 애정까지 담아내며, 시청자에게 깊은 몰입과 힐링을 선사한다.



Kirin Camp 구독자수_174만 명, @KirinCamp

‘KirinCamp’는 조용한 자연 속, 혼자만의 감성 캠핑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여성 솔로 캠핑 채널이다. 자막 없이 오로지 자연의 소리와 촬영자의 손길만으로 흐르는 영상은 일상의 소음을 지우고 고요한 몰입을 선사한다. 장비 세팅부터 불 피우기, 조리, 그리고 평온한 식사까지 한 편의 짧은 영화처럼 전개되며, 드론과 고정샷을 활용한 감각적인 영상미도 인상적이다.



Rirang OnAir 구독자수_146만 명, @RirangOnAir

혼자 떠나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캠핑, ‘RirangOnAir’는 경차 한 대로 전국을 누비며 쌓아 올린 리랑의 솔로 캠핑 일지를 담는다. 이 채널의 영상은 자막이나 해설 없이 자연의 소리로 채워진다. 빗속의 텐트, 바람 부는 밤, 아침 햇살 아래 펼쳐지는 식사까지, 리랑의 하루는 담담하지만 강한 온기를 품고 있다. 소리 없이 깊이 스며드는 캠핑의 시간, 그 조용한 몰입이 화면 너머로 퍼져간다.



RYUCAMP 구독자수_99.4만 명, @RYUCAMP

반려견 류아와 함께하는 ‘RYUCAMP’다. 눈 내리는 설원, 폭우 속 야영, 아늑한 핫텐트 안의 목조 난로 ASMR까지, 리얼한 사계절 풍경과 소리로 채워진 영상이 특징이다. 아름다운 영상미 속에서 산들바람, 새소리, 불멍의 정취가 고스란히 전해지며, 캠핑 초심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장비 세팅 과정까지 투명하게 보여준다. 하루의 끝을 함께 보내는 듯한 몰입감이 매력이다.



도토리TV 구독자수_36.8만 명, @dotoriTV

‘도토리TV’는 리얼한 캠핑의 모습을 위트 있는 말투와 생활 밀착형 장비 리뷰를 더한 감성 브이로그 채널이다. 우중 캠핑, 차박, 백패킹처럼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특유의 입담으로 상황을 유쾌하게 풀어낸다. 과장 없는 화면, 솔직한 장비 사용기, 그리고 적당히 무심한 듯 던지는 농담들이 묘하게 몰입감을 만든다. 진짜 캠핑을 가볍고도 재밌게 경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딱이다.



오지브로 구독자수_33.4만 명, @ogbro

‘오지브로’는 아무도 없는 숲속과 빗속 산 정상에서 홀로 몸을 던지는 리얼 솔로 캠핑 채널이다. 텐트조차 없이 폭우 속 데크 위에서 하룻밤을 보내거나, 영하 30도 환경에서 땅을 파고 생존 캠핑을 하는 등 다소 극단적인 도전정신이 특징이다. 자연의 소리와 촬영자의 호흡이 생생히 전해지는 영상은, 시청자를 현장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며 진짜 야생을 경험하게 한다.



무카캠핑 구독자수_13.2만 명, @무카캠핑

무카캠핑은 퇴사한 아빠의 캠핑 일상을 담은 채널이다. 갓성비 캠핑템, 내돈내산 미니멀 캠핑, 아내 몰래 FLEX 장비 리뷰 등 실용적인 콘텐츠가 매력 포인트다. 방송에서는 캠핑 초심자부터 전문가까지 두루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장비 셋업부터 조리, 캠프닉 현장까지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캠핑 멤버 모집과 다양한 이벤트 등 시청자와의 소통 또한 이 채널의 특징이다.





한여름 입 안에 퍼지는 특별한 행복, 팔빙수

한여름, 뜨거운 햇살을 피해 들어선 카페에서 시원한 빙수 한 그릇을 마주하면, 그 순간만큼은 계절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팔빙수'가 있다. 한국 여름 디저트의 상징처럼 자리한 팔빙수는 사실, 오랜 시간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

정리. 편집실

얼음을 저장하던 시대에서 시작된 빙수의 기원

빙수의 가장 초기 형태는 조선시대의 '빙고(氷庫)'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의 왕실과 양반가는 겨울에 얼음을 저장해두었다가 여름철에 꺼내 사용했는데, 『열하일기』나 『조선왕조실록』 등 고문헌에 따르면 과일이나 꿀, 약재 등을 섞어 더위를 식히는 용도로 얼음을 활용한 기록이 있다. 이는 지금의 빙수처럼 갈거나 토핑을 얹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차가운 얼음을 단맛과 함께 즐긴다는 점에서 빙수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귀족 중심의 특별한 여름 별미였던 얼음 간식은 점차 시간이 흐르며 대중의 식문화로 확장된다.

이후 일제강점기 무렵에는 일본의 카키고오리 문화와 만나 지금의 팔빙수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얼음을 곱게 갈고, 설탕에 조린 단팥과 떡을 얹은 구성은 1950~60년대를 거치며 전국적으로 퍼졌고, 학교 앞 분식집이나 다방, 극장 매점 등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정겨운 간식으로 자리잡았다. 연유, 토종림 과일, 젤리, 미숫가루 등 당대 재료들이 가득 얹힌 팔빙수는 손으로 얼음을 갈아 만든 수제빙수가 많았던 만큼, '정성'이 담긴 여름의 맛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빙수, 디저트의 트렌드를 이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빙수는 더욱 다채롭고 감각적인 디저트로 진화한다. 우유나 생크림을 얼린 눈꽃빙수, 제철 과일을 듬뿍 얹은 과일빙수, 인절미, 말차, 티라미수, 초콜릿 등 개성 있는 토핑을 더한 프리미엄 빙수까지, 맛은 물론 비주얼과 콘셉트 면에서도 큰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카페들은 매년 여름, 독창적인 한정판 빙수를 내놓으며 SNS 감성을 자극하고 있고, 이제 빙수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한 그릇의 예술'로까지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여전히 여름이면 '팔'을 찾는다. 단지 익숙해서가 아니다. 팔빙수는 유년기의 여름방학, 친구들과 나눴던 추억, 손으로 얼음을 갈아주던 가족의 모습 같은, 시간을 머금은 맛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는 팔빙수. 전통의 맛을 간직하면서도 오늘의 감각을 담아내는 이 특별한 그릇이야말로, 한국 여름을 대표하는 디저트로서의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무더위 잡는 여름 간식, 전국 빙수 맛집

수도권

- 다방 감성 제대로, 옛 빙수를 맛볼 수 있는 '세운나 다방'(서울 중구 을지로 157 대림상가 4층)
- 원숭이 빙수와 봉어빵 빙수로 사랑받는 곳 '묘사서울'(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2)
- 강원도 팔으로 만든 저장 수제 팔이 올라간 '마이포터리'(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782번길 71-40)

강원권

- 계절빙수로 취향 저격하는 '흰다정'(강원 속초시 수복로 248)
- 애플망고 들어간 영롱한 빙수 '로지커피'(강원 강릉시 창해로14번길 52)

충청권

- 아늑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내뿜는 공간에서 빙수를, '백정화'(대전 유성구 노은서로 101)
-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특색있는 신선로 빙수 '카페용담'(세종 금남면 안금로 257)

전라권

- 비빔밥 닮은 이색적인 비빔빙수 '카페랜잡다'(광주 광산구 풍영로101번안길 19-12)
- 한옥마을에서 맛보는 흑임자 팔빙수 '외할머니 솜씨'(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목대길 81-8)

경상권

-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맛보는 말차 팔빙수 '다천산방'(대구 수성구 세진로 93)
- 독특한 빙수 메뉴들이 즐비한 '생강나무'(부산 중구 동광길 56)

제주권

- 전국 최초로 실타래빙수를 개발한 '엘리스 시청 본점'(제주 제주시 서광로32길 36-1)
- 제주 토박이라면 안먹어본 사람이 없다는 빙수 맛집 '빠빠라기'(제주 제주시 중앙로 218)

오늘 전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요

우리는 종종 가끔 만나는 지인이나 중요한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에 인색한 경우도 많은데요.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바로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 쉽고 작은 행동이 우리 모두의 내일을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정리. 편집실



부산신용지원단 강미숙 팀장

구상지원부 김민호 과장

매사에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이고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양희경 부지점장님 모습을 20년 이상 보았습니다. 사랑스러운 후배이자 동료이고 수려한 미모까지 겸비한 마음 따뜻한 분 덕분에 저 또한 계속 발전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저는 구상지원부 김민호 과장님을 칭찬해 드립니다. 곧 민원이 접수될 것만 같은 것들, 너무 바쁠 때 드린 급한 질문들, 사소한 정책 등 때마다 진심으로 적극, 신속, 차분하게 대응해주셔서 항상 감사했고... 우리 회사에 섰던 영향력을 전파하는 이런 훌륭한 직원이 있어서 미래가 밝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듯하고 선한 마음 변치 마시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상지원부 김민호 과장

상품지원부 안소영 과장

과분한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를 하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는데, 팀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되었고, 오히려 제가 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편하게 연락하면서 의견 교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품지원부 안소영 과장님을 꼭 칭찬하고 싶습니다. 타 부서와 협의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안소영 과장님께서 매번 합리적이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업무 처리 능력과 태도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께도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해 이렇게 칭찬을 전합니다!



상품지원부 안소영 과장

강남신용지원단 장범수 팀장

언제나 내·외부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심을 다하시는 김민호 과장님께 칭찬을 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남신용지원단의 장범수 팀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 시절, 옆에서 보았던 팀장님은 정확한 업무처리, 친절하고 고객 응대,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이 물어보면 항상 친절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팀장님 같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팀과 부서를 잘 이끌어주시며 회사의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강남신용지원단 장범수 팀장

재무관리부 이경민 선임

안소영 과장님은 신입답지 않은 노련함으로 지점 생활을 워낙 잘하셔서 제가 큰 도움을 드린 것 같지도 않은데 오래전 인연을 좋게 기억해 주셔서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는 재무관리부 이경민 선임님을 칭찬합니다. 얼마 전 사례가 없는 업무로 곤란을 겪은 일이 있었는데, 저의 다양한 질문 공세와 독촉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넘게 기간 동안 유관부서와 은행을 넘나들며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겨주신 덕에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내 일처럼 챙겨주는 동료 직원의 친절함과 적극적인 업무태도에 감명받아 이 자리를 빌려 칭찬 글을 전해드립니다.



재무관리부 이경민 선임

IT운영지원부 오용민 과장

장범수 팀장님 덕분에 오히려 제가 새로운 업무 사례를 배우게 되어 감사했는데,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회사 생활에 큰 원동력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알잘딱깔센의 표본인 IT운영지원부 오용민 과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차세대추진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엄청난 업무량에도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해주시고, 업무 처리까지 깃벽하게 해주시는 항상 감사드리고 존경스러운 선배님이십니다~!



IT운영지원부 오용민 과장



매출채권부 목설빈 선임

이경민 선임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부탁드리는데, 민망하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출채권부 목설빈 선임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차세대 프로젝트 중간에 급하게 합류하시면서 적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대외/대내 협조 상황에서도 중간 다리 역할을 잘해주시면서 빠른 판단과 세심함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는 새로운 부서에서 적응하시는 바쁜 상황에서도 A/S까지 챙겨주시니 칭찬 글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해 드립니다.

무더위를 날릴 8월의

개봉영화 라인업



올여름, 극장가는 온 가족을 위한 애니메이션부터 심장 뛰는 액션 블록버스터, 오싹한 로맨틱 코미디와 묵직한 역사 드라마, 신비로운 미스터리 스릴러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풍성한 스토리로 가득하다. 이번 8월, 당신의 취향을 저격할 여섯 편의 개봉영화를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스머프

출연: 리아나, 제임스 코든,
닉 오퍼맨, JP칼리엑,
다니엘 레비 등
개봉: 2025년 8월 6일
장르: 애니메이션

악당 마법사 가가멜과 그의 쌍둥이인 라자멜이 파파 스머프를 납치하고, 그의 자리를 위협한다. 이에 스머펫(리한나)은 친구 스머프들을 데리고 인간 세상인 ‘현실 세계’로 모험을 떠난다. 그들은 인간 아이들과 협력해 기발한 방법으로 가가멜의 음모를 저지하며, 스머프 마을을 구하기 위한 대장정을 펼친다. 모험 속에서 우정과 팀워크의 진정한 힘을 확인하는 가족용 판타지 모험이다.



악마가 이사왔다

주연: 임윤아, 안보현, 성동일, 주현영
개봉: 2025년 8월 중
장르: 미스터리

백수 길구(안보현)는 아랫집에 이사 온 선지(임윤아)의 미스터리한 매력에 사로잡혀 ‘악마 감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기괴한 비주얼의 선지를 엘레베이터에서 마주치고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선지는 밤마다 악마로 변하는 저주에 걸린 인물이고, 길구는 그녀의 비밀을 지키며 혼란 속에서 점차 그녀에게 끌린다. 해프닝과 로맨스가 엮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이해하며 묘한 동거 관계를 이어간다.



검은령

주연: 임도화, 아누팜
개봉: 2025년 8월 중
장르: 공포

평범한 대학생 수아(임도화)는 우연히 금기된 장소를 목격한 뒤,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쫓기기 시작한다. 그 후 나타난 의문의 남자 아누얏(아누팜)은 그녀에게 과거의 죄를 묻듯 따라붙고, 수아는 점점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다. 반복되는 환영과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되고, 오래전 봉인된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영화는 서늘한 공기처럼 서서히 조여오는 오컬트 스릴러다.



발레리나

주연: 아나 데 아르마스, 카
아누 리브스, 이안 맥
셰인 등
개봉: 2025년 8월 중
장르: 액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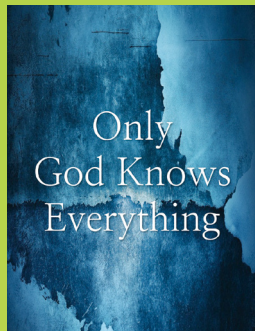
발레리나 활동 중 아버지가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을 목격한 이브(아나 데 아르마스)는 깊은 충격을 받고 러스카 로마의 킬러 조직에 들어간다. 그녀는 이후 프로암살자로 거듭나며 잔인한 트레이닝을 받고,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을 찾아 복수를 다짐한다. 영화는 빈틈없는 암살 기술과 화려한 액션으로 가득 차 있으며, 존 워(키아누 리브스)과의 교차점이 존재해 존 워 세계관에 깊이를 더한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주연: 하나에 나츠키, 키토
아카리, 시모노 히로
등
개봉: 2025년 8월 22일
장르: 애니메이션

다가오는 혈귀와의 결전을 대비해 대원들과 함께 주(柱)들의 합동 강화 훈련인 주 훈련에 임하던 중, 귀살대 본부인 우부야시키 저택에 귀살대의 숙적 키부초치 무잔이 나타난다. 우부야시키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주(柱)들과 탄지로였지만, 무잔의 손에 의해 정체불명의 공간으로 떨어지고 만다. 탄지로 일행이 떨어진 곳은 바로 혈귀의 본거지 무한성. 귀살대와 혈귀의 최종 결전의 막이 오른다.



온리 갓 노우즈 에브리띵

주연: 신승호, 한지은, 박명
훈, 전소민 등
개봉: 2025년 8월 중
장르: 미스터리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수도자로 살아온 도운(신승호)은 고요한 신앙의 삶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지켜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 호랑이 “내가 네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며 도운의 세계는 무너진다. 복수를 꿈꾸는 마음과 신부로서의 사명이 충돌하고, 도운은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진실과 마주하려 한다. 영화는 신과 인간, 용서와 분노의 경계에 선 묵직한 미스터리 스릴러다.

SGI
NEWS**SGI드림파트너스 생명의 숲 정원 조성활동**

화창한 4월 26일 토요일, 드림파트너스 단원들이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생명의 숲 정원조성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회사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내 기업동행정원 조성에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싱그러운 휴식공간을 선물함과 동시에, 약 80그루의 나무심기를 통해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탄소배출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활동을 실천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2025.04.26

2025년 서울머니쇼 행사

2025.5.8.(목)~5.10.(토)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5 서울머니쇼」 행사에 우리 회사가 참가했습니다. 「With SGI, Your Best Credit Partner」라는 테마로 SGI서울보증 History Wall과 'With SGI' Zone을 설치하고, 참관객 대상으로 주요 상품에 대한 보증상담과 회사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25.05.08~10.

2025.05.16

**제11회 임직원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

2025.05.16.(금) SGI서울보증 단체 헌혈행사가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벌써 11번째 실시되는 임직원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인데요, 본사 및 인근 점포 임직원들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본사 1층에서 헌혈버스를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개별헌혈을 하신 직원분들께서 보내주신 헌혈증서는 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게 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에스테은행 업무협약(MOU) 체결

우리 회사는 오스트리아 에스테 은행(ERSTE GROUP BANK AG)과 동유럽 지역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를 돕는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04.15

2025.05.28

**SGI드림파트너스 사랑의 빵 나눔봉사**

드림파트너스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성동빵나눔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는 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빵을 홀몸 어르신, 저소득, 장애인 가정 등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입니다. 따뜻한 가정의 달에 이뤄진 이번 행사로 우리 이웃들에게 훈훈한 온정의 기운이 전달됐길 바랍니다.

2025.05.28

**2025년 2분기 With SGI 포럼**

이번 WITH SGI Forum은 '상장사 직원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 TV)'로 유명한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상장회사 그리고 상장회사 임직원이 생각해야 될 역할과 원칙 등에 대한 소중한 강연이었습니다.



2025.06.24

2025년 2분기 힐링런치

임직원 건강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힐링런치'가 실시 됐습니다. '힐링런치'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임직원들의 건강한 신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번 시간에는 의자에서 하는 비즈니스 스트레칭을 진행했습니다.



2025.06.26

2025년 2분기 정년퇴임식

본사 4층에서 정년퇴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퇴임식에는 동료 및 가족분들이 참석하여 선배님들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셨고, 선배님들께서는 긴 시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정든 회사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맞이하시게 될 제2의 인생에도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25.06.28

SG드림파트너스 실미도 비치코밍

SG드림파트너스와 SGI유스플러스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실미도 해변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나의 쓰레기 아저씨]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배우 김석훈 님도 함께하여 좀 더 특별한 활동이 되었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날 주워 모은 해양쓰레기는 총 27자루, 약 270kg에 달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큼 우리의 바다도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사 유튜브+인스타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스타그램

출근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만의 루틴이 있으신가요? SGI 크리에이터들의 갓생 출근 루틴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시죠~~



유튜브

[SGI서울보즈 X 나의 쓰레기 아저씨] 배우 김석훈과 SGI서울보즈 드림파트너스 단원들이 해양 생물을 지키기 위해 인천 실미도에 갔습니다. 과연 신비의 섬, 실미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S:ZIN

2025년 여름호 난센스 퀴즈



어렵게 생각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재치 만점 난센스 퀴즈!

지금 바로 에스스퀘어 설문 게시판에서 도전하세요!

4개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으신 분 중에서 추첨하여 상품권(커피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1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을
5글자로 말하면?

□ E 人 O ㄱ

2

형제가 싸울 때
동생 편만 드는 곳은?

ㅎ 표 O L ㄱ

3

해와 달 중 해만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사람은?

ㅎ ㄹ 표 E

4

신경통 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약기는?

ㅂ O ㄹ

지난호 퀴즈의 정답과 당첨자를 공개합니다.

정
답

1. 의자가없어서
2. 아까운사람
3. 인천염마다
4. 마르세유

당
첨
자

경원보상센터 김경미 센터장
감사실 신현인 팀장
구로디지털지점 정현석 부지점장
호남신용지원단 이일형 과장
강남지점 구태연 주임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